



## 한국에 있어서의

# 가톨릭 가족 계획 현황과 그전망

가톨릭의대 전임강사 맹 광 호

### 1. 한국 가톨릭 가족 계획 사업의 배경

오늘날 세계는 “인구 폭발”이란 커다란 위협을 목전에 두고 그 해결책을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인구가 늘어 나다면 2천년에는 현재의 세계인구 37억의 약배에 가까운 70억, 2천 50년에는 부러 3백억의 인간들이 좁은 지구위를 덮을것이라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벌써부터 서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전 세계인의 식량위기와 함께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는 실로 무서운 압박감으로 현대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유엔은 금년을 “세계 인구의 해”로 정하면서까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전세계인 출산억제운동을 벌이고 있다

년간 2%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인구밀도가 세계 여러나라중 상위권에 속한 한국에서의 인구증가는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 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증가율을 년 1.5%선 이하로 줄여야 할 입장에 놓여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 범 국민적인 계몽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작년 1월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공 임신 중절을 합법화한 모자 보건법을 제정하면서 까지 출산을 감소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불교계와 개신측에서는 인공임신 중절 자체는 불살생의 교리및 하느님의 심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피임 자체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각종 방법에 따르지 않을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비록 자연법에 위배되는 한이 있어도 인구폭발이라는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출산조절을 허락하지 않을수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은 물론 자연법에 위배되는 여하한 피임법도 이를 허락치않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교단은 모자보건법이 통과된 직후 “국법과 양심”이란 사목교서를 발표, 비록 국법이 낙태를 합법화 했을지라도 모든 신자는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할 것을 촉구, 이문제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타종교의 태도 등으로 인한 신자들의 동요에 쏘기를 막았다. 아울러 주교회의에서는 “낙태”라는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고서도 효과적인 출산 조절에 위배되지 않은 피임방법을 적극 개발토록 방침을 세우는 한편 그 보급과 계몽에 충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종전까지 교회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피임법으로는 “오기노”씨법을 들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당한 기간의 금욕 생활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인 방법이 될수 있으나 실제 부부생활을 하는 당사들에겐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당국의 적극적인 계몽에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오늘날 신자가정의 자녀수를 보면, 일반 비신자들과 별차이가 없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피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사정으로는 출산율을 줄이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고 교회에서는 도저히 실천하기 힘든 방법만을 권장하고 있으니 신자들은

남모르는 교민을 안은채 자연법에 위배되는 피임법을 사용 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으로 한국 가톨릭이 어떤 난관을 극복해서라도 신자들을 위해 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1“은 현재 한국 가톨릭의 인적(人的)인 교세(教勢)를 나타내 주는 통계자료이다. (1973년 통계)

예컨대 전국에는 약 80여만의 신자가 있으며 이외에도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교육및 의료 기관 종사자와 그 이용자 가운데 비신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걸 알수 있다. 이 중에는 출잡아 40만 이상의 임신 가능한 여성이 있고 철저한 성교육과 가정의 품위에 대해 교육 받아야 할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은 자료는 앞으로 교회가 인구문제를 디룸에 있어서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펴는데 고려 되어야할 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이표는 한국 교회가 가임여성과 학생들을 교육 계몽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교육및 의료 기관 그리고 “메스컴”도 다수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한국 가톨릭 가족 계획

### 사업 현황과 그 전망

교회가 신자들의 어려운 가정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데 있어서 가족 계획 문제를 지도해 온것은 부분적으로나마 펴 오래 되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자연주기법을 소개하는 정도 였으며 확실한 교육이나 체계있는 관찰을 할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극히 소극적이었다고 할수 밖에 없다.

그중에도 상당한 지식과 또 확신으로 이 일을 해온 분들이 외국 신부님이나 수녀님 가운데 몇 분 계셨음은 오늘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사업으로 본격화 시킨 원동력이 되는것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가톨릭 가족 계획 사업 현황은 크게 나누어 세가지 즉 본 병원협회 내의 행복한 가족 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국규모의 가톨릭적 가족 계획에 관한 교육, 지도, 계몽

계획과 춘천교구 박 도마주교님(Most Rev. Thomas Stewart)이 주관하여 “빌링스” 방법을 주로한 가족 계획 사업 그리고 한국 가톨릭 여성 연합회가 연 6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가톨릭 가족 계획 지도원 양성 교육등이다.

가톨릭 병원협회내의 행복한 가족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73년 2월이다. 이것은 1972년 11월 한국주 교회의가 “인공 유산과 피임”에 관해 토의하고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한 가족 계획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달 대구에서의 본 협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행동 계획에 합의를 본 이후 인 것이다.

신부, 수녀, 의사, 사회 사업가등 12명의 위원이 이일을 위해 위촉되었고 1차로 전국의 성직자 3,000여명에 대한 세미나와 가족 계획 요원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용 인쇄물의 발간등을 위해 외국기관에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으며, 같은 목적을 가진 외국의 여러 가톨릭 가족 계획 기관이나 학자들과도 교류를 가져오고 있다.

그동안 한차례의 세미나를 가졌고 위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교구나 본당, 그리고 외부 세미나에 연사로 참여해 왔다.

그간의 성과 가운데 빼놓을수 없는것은 지난 8월 8일 부터 5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가톨릭 가족 계획 협회 창립 총회에 창립 멤버로써 본 위원회 조규상박사가 참석하고 온 일이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학문적인 연구와 또 그구체적인 사업을 국가간의 협조로서 더욱 확실히 전개 시킬수 있는 발판이 된것으로 본다. 아직 경제적 여건때문에 크게 사업에 임하고 있진 못 하지만 국제간의 교류와 학문적연구 그리고 강의와 글을 통한 교육 계몽등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각 본당이나 병의원에서의 가톨릭적 가족 계획 사업을 통괄하여 지도 계몽하는 역할과 여성연합회의 교육훈련에도 깊게 관련을 맺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춘천 교구의 활동은 1970년 이후 교구사목 정책의 하나로 자연주 기법을 본당별로 가르쳐오던 것을 72년 5월 이후 최근 개발된 “빌링스”법으로 바꾸어 철저한 교육과 실천에 임하고 있는 바 그 성과가 매우 괄목할 만하다.

Structures of Catholic Church in Korea

Possible Structure	Number of Points	Workers		Audients
		Type	Numbers	Total
<u>Church Structure</u>				
Parishes	438	Priests	909	
Secondary Stations	1,778	Brothers	168	
Major Religious Superiors	46	Nuns	2,378	
(men/women)		Catechists	3,099	
		Volunteers	2,798	803,620
<u>Catholic Association</u>				
Catholic Womens Association	5	Workers	34	5,200
J.O.C.	13	Workers	28	4,000
Catholic Chaplains Association	43	Assistants	43	18,000
Catholic Officers Association	1	Secretary	1	270
<u>Medical</u>				
Catholic Hospital	28	Doctors	466	1,665,000
Catholic Clinics	33	Nurses/Nuns	652/204	
Leper Colonies	19	Workers	38	3,131
Catholic Physicians Guild	1	Secretary	2	1,322
<u>Education</u>				
Catholic Middle School	43	Councilor	86	37,864
Catholic High School	35	"	70	25,997
Catholic Colleges	7	"	14	5,394
Professional School	12	"	24	1,161
Catholic Seminary	2	"	4	934
Catholic Secondary Sch. Princ. Assc.	1	Secretary	1	74
Total:	<u>2,506</u>		<u>11,019</u>	<u>2,562,967</u>
<u>Publications</u>				
Daily	1			
Weekly	3	Total Circulation	500,000	
Monthly	2			
Quarterly	2	Secretary	5	165

춘천의 성골롬반의원, 강능희 칼바리병원, 호천의 평화의 모후 병원등 3개 병원과 14개 본당에 각각 지도자와 요원을 두고 현재 약 3,000명 이상을 교육했다. 더구나 춘천골롬반 병원의 경우 그동안 가톨릭 가족 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한 타 교구 주교님이나 신부, 수녀님들의 개별적 요청에 의해 대전, 인천, 원주, 제주, 삼척, 대구, 부산등지로 부터온 지도자 50여명을 교육 훈련시키는데 명실공히 한국 가톨릭 가족 계획 사업의 선타역활을 해오고 있다.

춘천교구는 이 사업을 위해 월 약 50여만원의 인건비를 쓰고 있을뿐 아니라 교육용 지침이나 차트 인쇄등에도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한편 1974년 5월 21일부터 가족 계획 지도자 훈련 1차 교육을 시작한 한국 가톨릭 여성연합회는 9월 현재 169명을 배출 했는데 본당 별로는 연 56개 본당에서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동연합회는 가족 계획 위원회를 그안에 두고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하면서 이 사업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본당에서 지도자를 파견, 훈련시키는데 별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 이 위원회는 그간 11개 본당

을 순회하며 1,300여명의 신자들에게 강연을 한 바 있다.

춘천과 여성연합회에서 교육받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인천, 대전등 여러교구 여러본당이 점차 이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음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이와같은 사업은 교회가 신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지원과 참여가 있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여기 방법과 달리 가톨릭적 가족 계획 방법은 철저한 교육과 관찰이 필요한 만큼 많은 지도자와 요원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특별한 외부의 원조없이 이 일을 하는대는 큰 희생정신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현재 이 일에 열의를 가진 많은 분들을 갖고 있으며 이일을 전국적 수준에서 평가하고 독려할수 있는 "행복한 가족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교회 최고 지도층의 보다 적극적 참여와 지휘 감독 그리고 외부로 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얻어내는 일이라고 할수 있다.

(△)

祝

發

刊

가톨릭中央醫療院